

2016년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귀국보고서



광 명 시 의 회

〈목 차〉

1. 연수개요	2
2. 주요 연수일정	3
3. 방문국 일반현황	4
4. 주요 연수내용	
① 그라나다 노인 복지시설	10
② 마드리드 노인 복지시설	18
③ 메리다	27
④ 리스본	28
⑤ 세비야	30
⑥ 룬 다	32
⑦ 말라가	33
⑧ 그라나다	34
⑨ 톨레도	35
⑩ 마드리드	36
5. 연수성과 및 시사점	38

2016년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귀국보고서

1 연수개요

연수목적 및 배경

-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다양한 문화와 행정제도 및 시설을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서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
- 도시개발, 문화, 관광, 복지 등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

□ 기 간 : 2016. 4. 21.(목) ~ 4. 29.(금) 【7박 9일】

□ 방 문 국 : 2개국(스페인, 포르투갈)

□ 총예산액 : 28,464,000원

□ 방문자 현황(시의원 4, 공무원 2)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시의원	부 의 장	이병주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춘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정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이영호	
공무원	복지건설전문위원	김종근	
	주무관	김범규	

2 주요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시 간	일 정	비 고
4.21(목) (1일차)	—	○ 광명 → 인천 → 마드리드	
4.22.(금) (2일차)	전 일	○ 이동(마드리드 → 메리다) ○ 메리다 로마 유적지 견학 ○ 이동(메리다 → 리스본)	
4.23.(토) (3일차)	전 일	○ 리스본 신·구시가지 등 견학	
4.24.(일) (4일차)	전 일	○ 이동(리스본 → 세비야) ○ 세비야 대성당, 스페인 광장 등 견학	
4.25.(월) (5일차)	전 일	○ 이동(세비야 → 론다) ○ 신·구시가지 연결하는 누에보 다리 및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론다 투우장 견학 ○ 이동(론다 → 미하스 → 말라가) ○ 말라가	
4.26.(화) (6일차)	전 일	○ 이동(말라가 → 그나라다) ○ 알함브라 궁전 및 알바이신 지구 견학	
4.27.(수) (7일차)	전 일	○ 그라나다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 현장 방문 ○ 이동(그나라다 → 톨레도) ○ 세계문화 유산 톨레도 대성당 등 견학 ○ 이동(톨레도 → 마드리드)	
4.28.(목) (8일차)	전 일	○ 마드리드 노인 복지시설 현장 방문 ○ 프라도 미술관 견학	
4.29.(금) (9일차)	입 국	○ 마드리드 → 인천 → 광명	—

3 방문국 일반 현황

스페인

○ 일반현황



스페인의 정식 국명은 스페인 왕국(Kingdom of Spain)으로 스페인어로는 에스파냐 왕국(Reino de Espana)이다. 유럽의 서쪽 이베리아 반도에 있으며, 국토 총 면적은 505,370km²로 한반도의 약 두 배이다. 인구는 4,770만 명이고 대다수의 라틴족 외에 원주민인 이베리아인, 로마인, 게르만인, 아랍인 등 다양한 혼혈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다. 공용어인 스페인어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고 있어 중국어, 영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이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어라고 하면 카스티야 지방의 방언을 가리키지만, 스페인의 많은 지역에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여, 카탈루냐, 바스크 등에서는 각각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1조 2,424억 달러로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EU 및 NATO 회원국으로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위 치	북대서양과 지중해 연안
수 도	마드리드(Madrid)
면 적	50만 5,370km ² (한반도의 2.3배)
인 구	약 4,770만명(세계 28위)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로마가톨릭교(94%). 기타
통 화	유로화(Euro)

○ 지 리

유럽대륙의 서쪽 끝인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포르투갈, 북쪽으로 프랑스에 접하고, 남쪽으로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마주하며 동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 비스케이만(灣), 북서쪽으로 대서양에 면한다. 국토는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레아레스 제도(諸島), 카나리아 제도에 흩어져 있다. 모로코 북부에도 에스파냐령(領)인 세우타, 멜리야 및 모로코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3개의 작은 섬인 차파리나스(Chafarinas), 페논데알우세마스(Penon de Alhucemas), 페논데벨레스텔라고메라(Penon de Velez de la Gomera)가 있다.

○ 기후 및 지형

유럽 스페인의 기후는 동남부는 지중해성이며, 북서부는 온대성 기후이다. 지형은 산악지형이 많은데 전국의 1/3정도가 산지이며 평균 고도는 해발 600m 이상으로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고지형이다.

○ 국가형태 및 정부형태

국가 형태는 입헌군주국이며, 국왕은 펠리페 6세(Felipe VI)이다.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 2011년 12월에 취임한 국민당(PP, Partido Popular)의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Mariano Rajoy Brey)가 총리이며 임기는 4년이다. 스페인의 의회는 양원제로 하원이 350석, 상원이 266석이며, 임기는 모두 4년이다. 스페인 의회는 일단 양원 모두 어떤 법에 대해서든 집행권을 가지며 1978년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하원은 총리의 내각을 출범하고 해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 스페인 헌법에서 스페인 총리는 일단 국왕이 임명하고 후에 하원이 승인하는 형식을 따른다.

○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크게 중앙행정(central administration)과 지방행정(local administration)으로 구분된다. 헌법 제148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지역(comunidad autonoma), 도(provincia), 시(municipio) 등 3개 형태로 구분된다.

스페인에는 현재 17개 광역자치지역과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 같은 2개 자치 시, 52개 도, 8,087개의 시가 있으며, 각 도별로 자치 수도 52개가 있다. 자치행정의 기본 단위는 시이고, 시의 규모에 따라 마드리드(Madrid)와 같은 대도시는 여러 개의 구(distrito)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각 광역자치지역에 정부대표(delegado del gobierno, 차관급)를, 그리고 각 도에는 도지사(gobernador civil)를 임명하며, 각 도는 중앙정부 수도(마드리드)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포르투갈

일반현황



정식명칭은 포르투갈공화국(Portuguese Republic)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본토 이외에 대서양의 아조레스 제도와 마데이라 제도를 영토로 한다. 1974~1975년에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모잠비크·카보베르데·상투메프린시페·앙골라가 잇달아 독립하고, 1976년 동(東)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병합되었으며, 1999년에는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어 총면적 209만km²에 이르던 전성기의 해외 영토가 대폭 축소되었다. 지중해·북서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의 네 지역을 잇는 해상교통의 결절점(結節點)에 위치하여 ‘지리상의 발견’ 시대에는 에스파냐와 더불어 큰 역할을 하였다. 국명은 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 포르투(오포르토)에서 유래했다.

포르투갈은 국제 연합 (UN), 유로존, 쉥겐 협정을 포함한 유럽 연합 (EU),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CPLP)의 창립 회원국이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위 치	이베리아 반도 서부
	수 도	리스본(Lisbon)
	면 적	9만 2,090km ² (세계 111위)
	인 구	약 1,081만명(세계 79위)
	언 어	포르투갈어
	종 교	로마가톨릭교(84.5%), 기타
	통 화	유로화(Euro)

○ 지 리

유럽 서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이베리아 반도의 서부와 북대서양 상의 군도들을 그 영토로 한다. 국토의 총 면적은 92,090km²로, 동쪽과 북쪽은 스페인, 서쪽과 남쪽은 대서양을 맞댄 대륙부와 대서양 상의 두 자치지역인 아소르스 제도와 마데이라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나라이다.

○ 기후 및 지형

지형은 에스파냐와 경계를 이루는 동부산지와 그 전면에 전개되는 해안평야로 나눌 수 있다. 동부산지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국토 중앙에 동서로 흐르는 테주강(에스파냐에서는 타호강)을 경계로 북쪽의 북부 포르투갈은 산이 많은 다우지역이, 남쪽의 남부 포르투갈은 낮은 평야가 많은 건조한 지역이 펼쳐진다.

기후는 대체로 온난하며 북부 포르투갈은 연평균강수량은 1,500mm 안팎이며 포르투갈에서도 습윤한 지역으로 해양성(대서양형)의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반면 산악지대는 극심한 대륙성기후이다.

○ 국가형태 및 정부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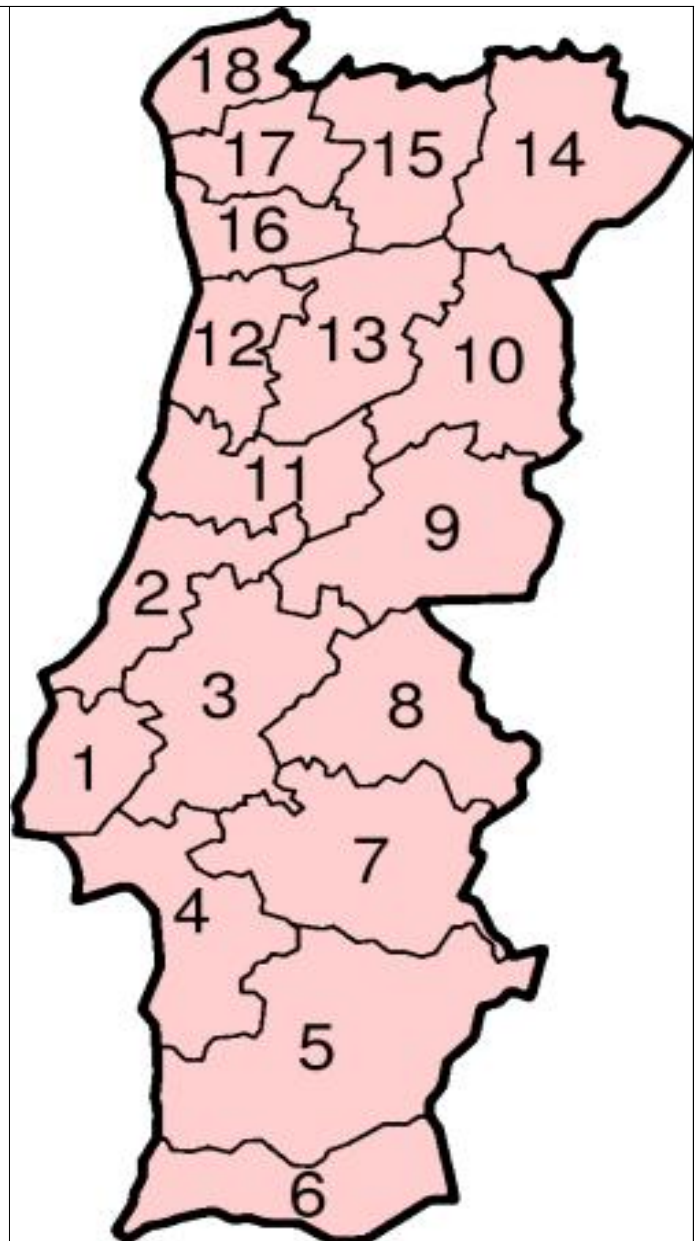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공화제이며, 의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230석)이다. 주요 정당은 사회당(PS), 사회민주당(PSD), 단일민주연합, 민중당, 좌파블럭 등이다.

포르투갈 공화국의 대통령은 포르투갈 공화국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다. 포르투갈 헌법에 따라 임기는 5년이며, 한 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현 대통령은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이다.

○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본토의 18개 현(distrito)을 포함한 5개 지방(região)과 북대서양에 위치한 2개 자치지방(região autónoma)인 아소르스 제도와 마데이라 제도를 포함해 총 7개 지방(região)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아래로 18개의 현이 있으며 현 아래로는 주요 도시 및 촌락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conselho)가 존재하며, 그 아래로는 가장 작은 단위인 구역(freguesia)가 있다.

- 1.리스보아 현(Lisboa)
- 2.레이리아 현(Leiria)
- 3.산타렘 현(Santarém)
- 4.세투발 현(Setúbal)
- 5.베자 현(Beja)
- 6.파루 현(Faro)
- 7.에보라 현(Évora)
- 8.포르탈레그르 현(Portalegre)
- 9.카스텔루브랑쿠 현(Castelo Branco)
- 10.구아르다 현(Guarda)
- 11.코임브라 현(Coimbra)
- 12.아베이루 현(Aveiro)
- 13.비제우 현(Viseu)
- 14.브라간사 현(Bragança)
- 15.빌라헤알 현(Vila Real)
- 16.포르투 현(Porto)
- 17.브라가 현(Braga)
- 18.비아나두카스텔루 현(Viana do Castelo)



4 주요 연수(견학) 내용

1 그라나다 노인 복지시설 방문

□ Residencia de Mayores La Milagrosa

- 일 시 : 2016. 4. 27.(수) 10:00 ~ 12:00
- 장 소 : 그라나다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 복지시설
- 참 석 자 : 3명
 - 복지 담당 시의원(Olvido de la Rosa Baena)
 - 복지 담당 실장(Juana Maria Rodriguez Masa)
 - 노인 복지시설원장(Emilio Pastor Morales)
- 진행순서 : 인사 및 현황 설명 → 시설 견학 → 간담회 및 질의·응답
→ 기념품 교환 → 기념촬영
- 브리핑 내용
 - 그라나다시는 172개 마을로 나뉘어져 있으며, 1,000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많음
 -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안 나가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 의회에서 주관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도시로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하여 마을이 유지되고,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관리 등을 하는 것임
 - 이 복지시설은 연세가 많이 들었다거나 생활환경이 어렵다거나 혼자 남게 되었을 경우 적은 예산으로 들어올 있게 지원하는 곳임
 - 현재 4층 건물로 120명이 있으며, 건축 시 이동하기 편하게 가능한 평면으로 건축하였음

《 질의 · 응답 》

○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노인층이 어떻게 되며, 이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 노인수가 급증하여 2008년부터 법을 개정하였음

1. 노인 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도움
2. 긴급버튼시스템 - 급한 상황 의사 등의 도움을 받을 있도록 지원
3. 사람 집으로 보내서 청소, 음식 등 지원
4. 마을마다 작은 양로원이 있는데 오전에는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야간에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함(한국의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개념)
5.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한 경우, 가족이 없는 경우,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라나다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 복지시설 같은 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함

☞ 법을 개정한 가장 큰 목적은 마을에 인구가 줄어 마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마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임

○ 그라나다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 복지시설 같은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질문

☞ 각 마을마다 파견되어 있는 보건복지 종사자가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정보를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복지 담당 시의원, 기관 총 책임자, 보건복지 종사자가 팀을 구성하여 등급을 매김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문

☞ 노인들을 돕는 보조사를 찾기가 어려우나 현재 연수생(실습생)들이 많아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음

○ 이 복지시설에 다 수용이 안 될 경우 증축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

☞ 보편적으로 복지시설의 50km 반경 내를 조사하여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내게 되며 증축에 관한 사항은 안달루시아 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으로 보낼 것인지 사설양로원으로 보낼 것인지 하는 일을 결정함(건물 증축 권한은 안달루시아 주에 있음)

☞ 이곳은 사설과 병합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20명 중 정부에서 20명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받고 있으며 100명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향후 100%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 중임

○ 복지시설의 운영형태 및 연령제한 등에 대하여 질문

☞ 개인이 100%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정부가 100% 지원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있으며, 정부와 개인이 병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제일 많음

☞ 예를 들어 개인이 70%, 정부가 30%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곳도 있음

☞ 정부에서 100% 지원하면 정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양로원에 들어가면 개인부담이 커짐

☞ 예를 들어 퇴직금, 적금, 은행에 노후보장 받기 위해 부은 돈 등이 있으면, 양로원에서 75% 가져가고, 나머지 25% 정부에서 지원함

☞ 노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만65세 이상부터이나, 거동불편자 등은 60세부터 가능함

○ 의원은 몇 명이며,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질문

☞ 그라다나시는 의원이 11명이고 임기는 4년이며 투표로 선출함(급여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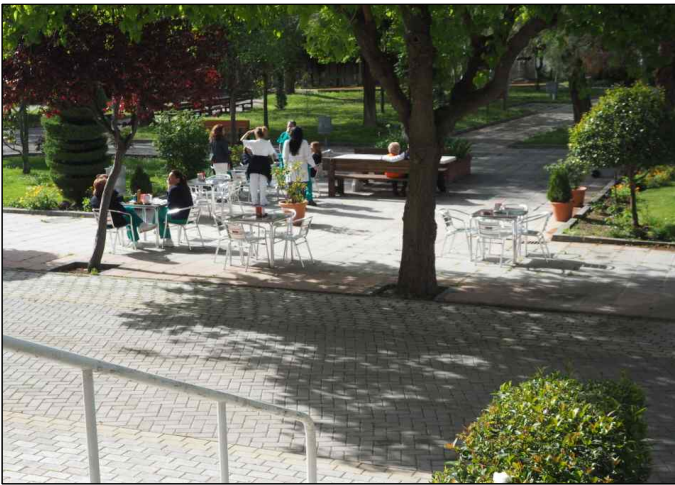
【관련 사진】



노인 복지시설 관계자와의 인사



노인 복지시설 건물안내 표지



노인 복지시설 정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 ▶ 노인 복지시설 내에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이 가능
- ▶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만족도를 높여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 작업장(Taller educacional)



축제에 사용할 물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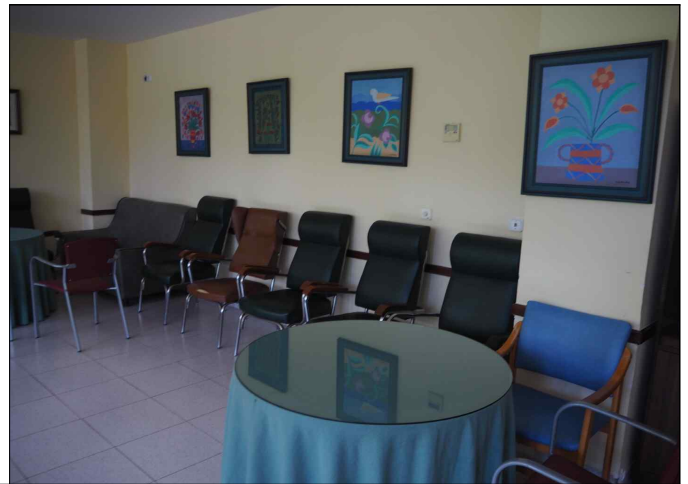
카펫 작업장
(Taller de Alfombras)

- ▶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 카펫, 접시 등 일부 물품들은 100% 판매되고 있음

- ▶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함
- ▶ 노인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직접 지역 축제 등에 사용할 물품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치매예방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함
- ▶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을 통하여 일감 제공 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노인의 수익 창출과 활기찬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음



작품 전시(통행로)



작품 전시(휴게실)

- ▶ 노인들인 적극적인 참여와 성취감을 높이기 위하여 곳곳에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있음



물리치료실(Fisioterapia)



의상보관실(ROPERO)



시의회 기념품 증정



답례품(접시)

- ▶ 기관 방문 협조의 감사 표시로 기념품을 증정하였으며 답례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이 직접 만든 정성이 깃든 수제 접시를 받음



간담회 및 질의·응답



공식일정을 마친 후 기념촬영

② 마드리드 노인 복지시설(Residencia Edalia Arturo Soria) 방문

○ 일 시 : 2016. 4. 28.(목) 10:00 ~ 12:00

○ 장 소 : 마드리드 노인 복지시설

○ 참 석 : 3명

- Directora(총관리자, 책임자) Eva Alba Fernandez

- Gerante(사장, 지배인) Joaquin Navajas Mela

- Gerente(부사장, 지배인) Angel Navajas Mela

○ 시설현황

- 층 수 : 4층

- 면 적 : 6,652m²

- 주거장소 : 149개(싱글 룸 101, 더블 룸 24)

- 이용금액 : 싱글 룸 월 2,500유로 / 더블 룸 2,200유로

- 체육관 및 재활, 진료소 및 치료방, 작업치료방, 발 치료 방, 세탁 실, 방문자용 주차장, 정원지역 등

○ 서비스

- 무기한 체류, 임시 체류(위탁 관리, 회복기 또는 재활)

- 포괄적 노인 평가 및 개별 치료 프로그램

- 의약품 관리 및 약물 관리

- 물리 치료 및 재활용, 사회복지, 작업 요법, 레저 및 자유시간

- 발 치료, 세탁 및 다림질, 이발

○ 진행순서 : 인사 및 현황 설명 → 시설 견학 → 간담회 및 질의·응답
→ 기념품 증정 → 기념촬영

○ 운영내용

- 침식 가능, 바닥 온돌, 밤마다 온도자동조절시스템 설치
- 방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이곳은 사설 복지기관으로 100% 개인이 부담을 함(병의 증증정도에 따라 정부에서 개인별로 지원금은 있을 수 있음)

《 질의 · 응답 》

○ 스페인의 노인 복지기관의 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질문

☞ 노인 복지기관 시설이나 시스템이 다양함

① 정부지원형

② 개인형

③ 정부지원형 + 개인형(비율이 다양) 80:20, 20:80 등

☞ 마드리드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이 훨씬 많음

○ 어떤 절차를 거쳐서 노인 복지기관을 선택하는지 질문

☞ 시청에서(각 시설로부터 정보를 받아) 입소를 희망하는 개인한테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개인별로 형편에 따라 시설을 결정함

○ 노인 복지시설 건축 시 중요사항 등 질문

☞ 영안실(tanatorio)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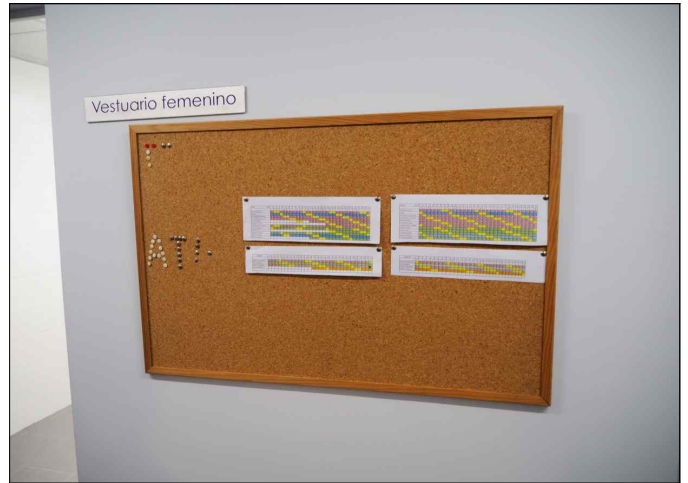
☞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의 크기이며(2003년 제정된 법) 법으로 복도, 식당, 기타 시설 등의 규격이 정해져 있음

☞ 음식, 보건, 건축 등 파트별로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청결상태, 시설 고장유무, 종사자 자격유무 등)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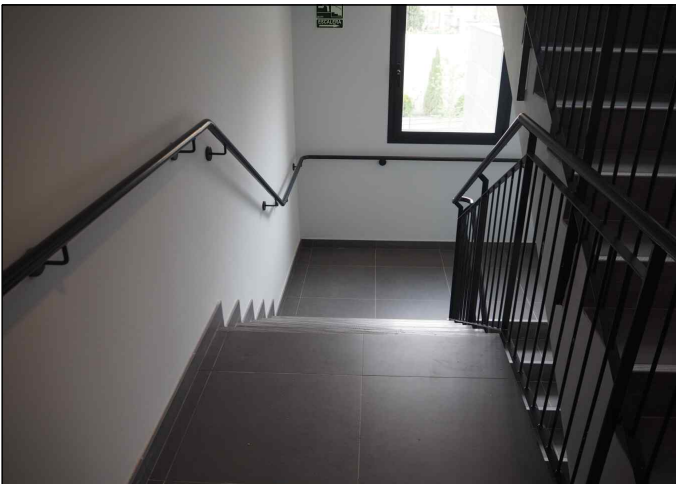


노인 복지시설 관계자와의 인사



여성노인 의류 교환주기표

▶ 노인들의 의류교환 주기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계단 양쪽에 난간을 설치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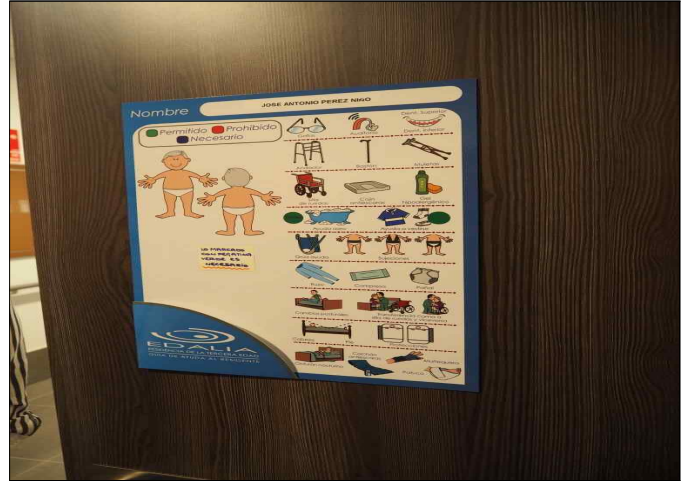


소화시설

▶ 소화기를 바닥에 두지 않고 일정 높이에 거치하면 눈에 잘 띄고 먼지에 덜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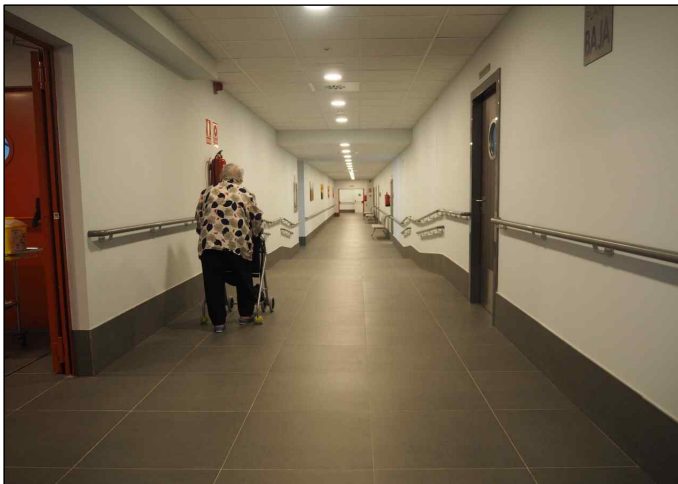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



허용, 금지사항 등을 그림으로 표시

- ▶ 각 방마다 개인별로 허용사항, 금지사항, 필요한 사항을 그림으로 쉽게 표시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임



넓은 통행로(2m 60cm)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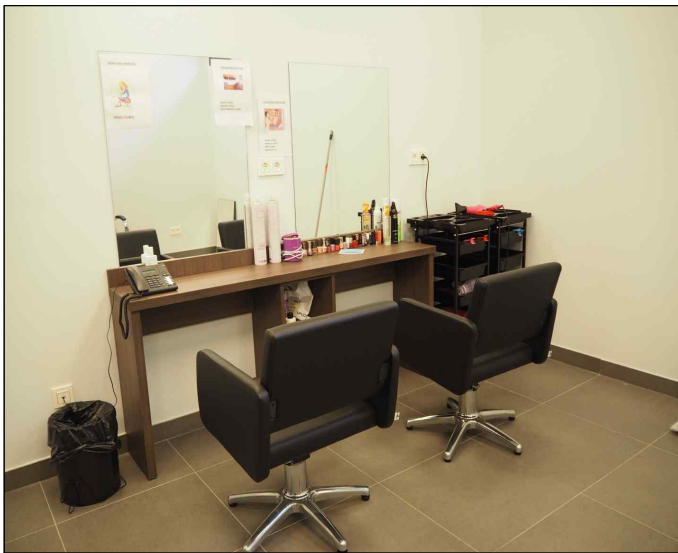
- ▶ 법 개정 등에 따른 규격 강화에 대비, 병원 규격과 동일하게 설치하여 충분한 통행공간을 확보함



물리치료실(Fisioterapia)



발병 치료실(podolog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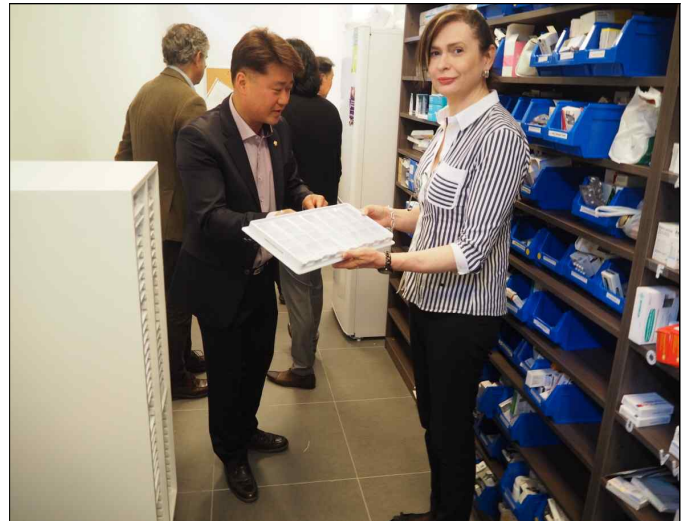


공동 화장대



젊었을 때 사진이 걸려있는 모습

- ▶ 요양 중 노인들의 젊었을 때 사진을 걸어둌
- ▶ 이는 옛날 생각을 떠올리게 하여 노인들의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함



약품보관대

- ▶ 각각의 서랍에 개인별로 이름표를 붙여 약품을 보관



버튼 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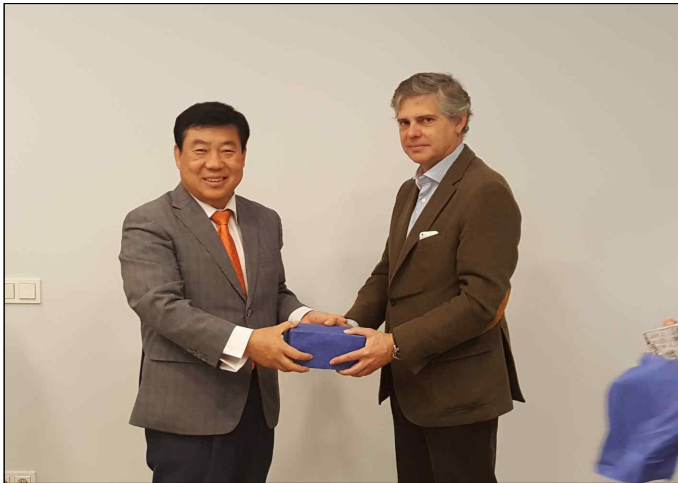


비상벨

- ▶ 각 침대의 머리말에 비상벨이 있으며 비상벨 송·수신 내역이 기록되어 사고·분쟁 발생 시 과실 여부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간담회 및 질의·응답



시의회 기념품 증정



공식일정을 마친 후 기념촬영

□ 광명시 노인양로시설(참고자료)

I. 예담마을 양로원

- 시설종류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청지기재단(이사장 김효은, 시설장 정창목)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이일로 196
- 입소현원 / 정원 : 40 / 31 (수급자 : 30명 실비 : 1명)
- 입소 대상

가. 무료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 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나. 실비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보증금 500만원, 실비 매월 45만원)

○ 입소 절차

가. 무료 입소대상자 : 양로원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 시(동주민센터)에 입소신청 -> 입소여부 결정하여 신청인과 시설장 통보

나.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 입소 심사 의뢰 -> 당사자간 계약

○ 입소서류 : 입소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 현 황

가. 개원 : 1998. 3. 19. 사회복지법인 청지기재단 출범 용인시에 시설 설치허가

나. 광명시 지원 : 1999. 5. 13.부터 현재

다. 종사자 : 10명

○ 2016년 지원

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 491,293천원(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다. 종사자인건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

라. 관리운영비(수급자 1인당 894,600/년당, 실비 입소자 1인당 447,300원/년당)

마. 종사자특수근무수당 등 지원 : 40,115천원(도비 10%, 시비 90%)

Ⅱ. 예광공동체(유료시설)

○ 시설종류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운영주체 : 개인(대표자 김인자) - 2015. 12. 21. 설치신고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34-3(광명동)

○ 입소현원 / 정원 : 없음 / 8명

○ 입소대상 : 60세 이상의 자

○ 입소절차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함

○ 지 원 : 유료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음

3 메리다 로마 유적지 견학

- 메리다는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큰 에스트레마두라 주의 대표 도시로 ‘작은 로마’로 불린다.
-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발전을 거듭하며 거대한 로마 원형극장과 다리 등이 건설되었는데 오늘날 스페인 최대의 로마 유적지로 1993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로마 극장, 결투가 벌어졌던 원형극장, 발굴된 유적을 전시하는 국립 로마 예술 박물관 등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고대 로마의 유적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공원 내 애완견 전용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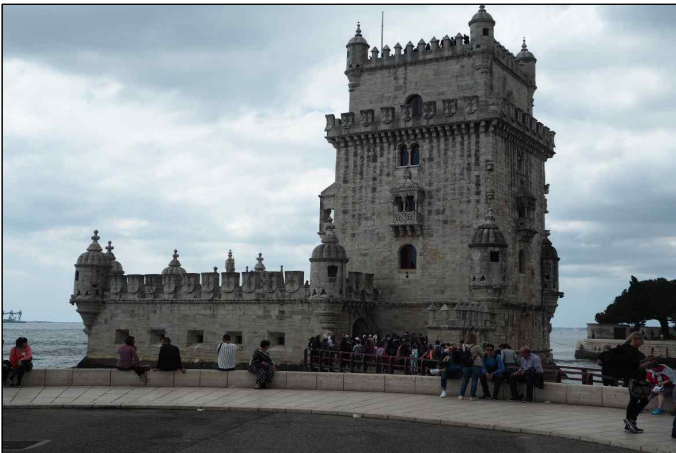
메리다 로마 유적지

- ▶ 공원 내 애완견들이 배변을 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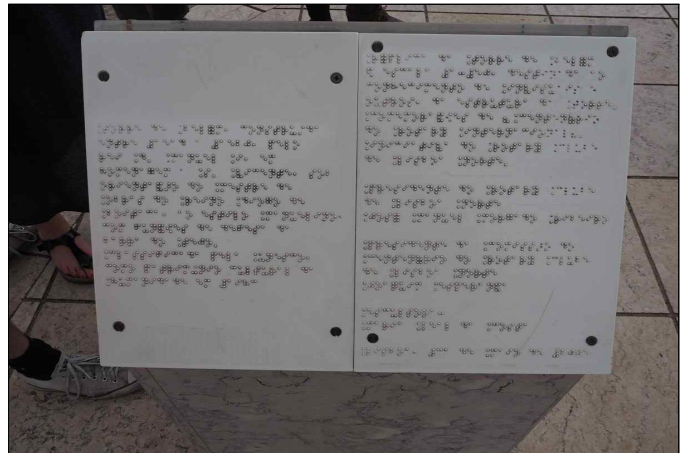
4 리스본 견학

1) 벨렘 탑, 제로니무스 수도원(유네스코 문화유산)

- 포르투갈 리스본 벨렘에 있는 타워로, 인근에 위치한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6세기 바스코 다 가마의 세계일주의 위업을 기념하고 리스본항에 드나드는 선박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세워진 탑으로, 포르투갈이 15~16세기에 강력했던 해양제국으로 번성하던 역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포르투갈 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건축물로서 마누엘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벨렘 탑



유적지 소개(시각장애인용)

2) 로시우 광장

- 로시우 광장은 13세기부터 리스본의 중심지로 모든 공식행사가 열려왔고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리스본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다양한 노선의 버스와 트램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며 리스본 시민과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3) 구시가지 · 신시가지

“중세와 근대의 모습이 공존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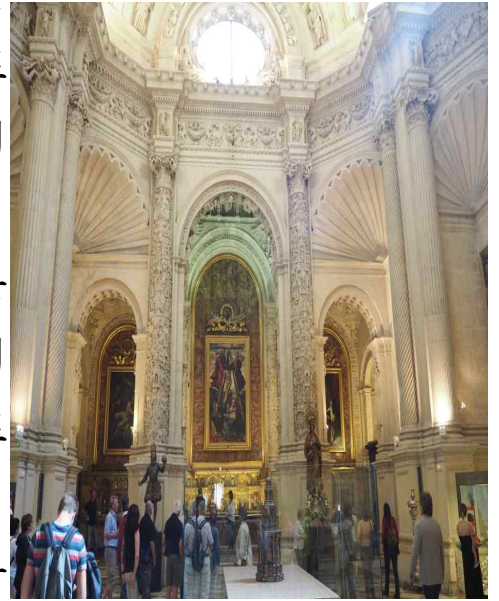
- 현재 리스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1755년 대지진으로 시가지의 3분의 2가 파괴되었고, 그 이후 폼발 후작의 지휘 아래 정비된 것으로 그 이전의 역사적 건축물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 지진피해에서 벗어난 일부 구시가지와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가 공존하며 특성별로 동부 구시가지, 서부 신시가지 등 2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 구시가지는 바이샤, 알파마, 바이루 알토, 벨림 지구로 나뉘며 행정기관,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다. 신시가지는 1988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리스본 엑스포의 시설과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 주변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신시가지로 개조한 것으로 자연의 재생 및 경관과의 조화로 토양오염 복원, 하천 정비, 교통망 확충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리스본의 신도심으로 성장, 교통 및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 리스본 시내 곳곳에서 종소리를 울리며 달리는 트램은, 승·하차가 편하고,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 별도의 신호체계 없이 노선위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지나다닌다.



5] 세비야 견학

1) 세비야 대성당(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운영시간 : 월~금요일 11:00~17:00(동절기), 09:30~16:00(하절기)
일요일 14:30~18:00
- 입장료 : 9유로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비야 대성당은 폭 116m, 길이 76m로 바티칸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 런던 세인트 폴 성당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콜롬버스의 관이 보관되어 있다.
- 12세기에 지어진 이슬람 사원을 부수고 지은 것이며 1402년부터 100여 년 동안에 걸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슬람 건축과 고딕, 르네상스 양식을 함께 엿볼 수 있었다.
- 성당 외부에는 박물관이라 해도 손색없을 만큼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35층의 히랄다 탑(La Giralda)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비야 전경이 장관이다.



2) 세비야 스페인광장

- 스페인 광장은 1929년 이베르 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사용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분수와 벤치, 바닥 등 모든 곳이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스페인 58개 도시의 휘장과 지도, 역사적 사건의 순간이 모두 기록돼 있다.
- 고딕양식의 반원 형태 건물로 둘러싸인 광장은 화려하면서도 기쁨이 느껴지며 우리나라에서 CF광고를 찍은 장소이기도 하다.

3) 세비야 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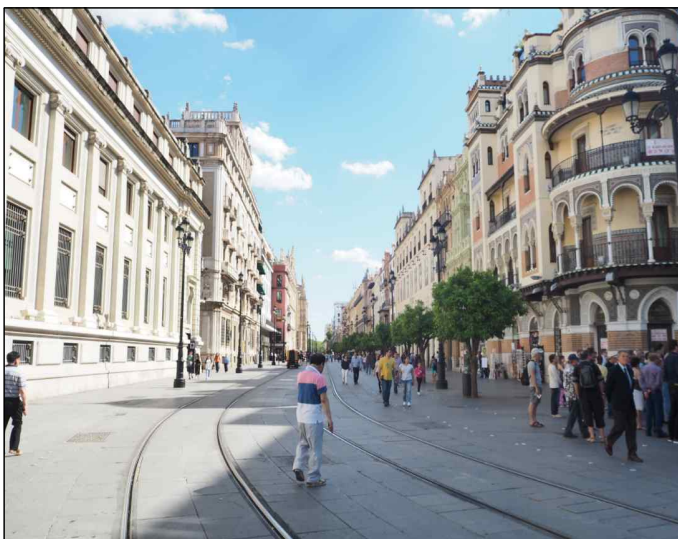
- 세비야 시청사는 3층으로 19세기에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외관이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준다. 세비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랜드마크(land mark)이며 화~목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동안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세비야 시청사 앞



- 세비야 시청사 앞 누에바 광장은 세비야의 교통 및 상업중심지로 주변에 숙소와 트램(메트로 센트로) 정류장이 많이 있다.



6 론다 견학

1) 론다 투우장

- 에스파냐 안달루시아 자치지역 말라가주에 속한 도시 론다에 있는 투우장
- 1784년에 건립된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이며 아직까지도 투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개방하고 있다.
- 지름은 66m이며 수용 인원은 약 6,000명이며, 관중석은 1·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중석 앞쪽으로 원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 부속 건물로 일류 투우사를 배출해낸 가문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으며 의상이나 사진, 포스터 등을 전시하고 있다.



2) 누에보 다리

- 남부의 론다의 구시가지(La Ciudad)와 신시가지(Mercadillo)를 잇는 세 개의 다리 중 하나로 1793년 완공되었다. 강을 따라 형성된 120m 높이의 협곡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현재 역사와 건축에 대한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까마득한 깊이의 협곡 밑바닥까지 닿은 거대한 다리는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 론다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이 다리를 보기 위해 인파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7 말라가 견학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는 장면



도로변에 설치된 모습

- 도로변에 일렬로 쓰레기통(분리수거함)을 그림과 색깔별로 배치하였음
- 저장 공간을 지하에 두었으며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함
- 지하에 음식물 쓰레기나 캔 등을 버리거나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있으며 저장 공간이 충분하여 주변이 깨끗함
-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주변 건물과도 잘 어울리며 저장 공간을 지하에 만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임
- 스페인의 경우 어디를 가더라도 쓰레기통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리가 깨끗하였음

☞ 단지 쓰레기통이 많이 설치되어서가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모범적인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함

8 그라나다 견학

1) 알람브라 궁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그라나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에 자리 잡은 알람브라는 이슬람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전형의 하나로 간주되며, 이베리아 반도에 아랍인들이 존재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 스페인이 힘을 잃으면서 한때 폐허가 되었으나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의 소설 '알람브라 이야기' 로 인하여 큰 인기를 끌자 스페인 정부에서 복원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의 명소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2) 알바이신 지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199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곳의 성채는 13세기에 처음 지어졌으며 30개 이상의 이슬람교사원이 있다. 옛 이슬람교도들의 거주지로 언덕을 따라 하얀 집들이 빼곡하게 자리한 동네로 이슬람 문화의 유산이 고스란히 간직된 곳이다.



알바이신 지구



무선 수신기

- 알람브라의 경우 질서유지 및 관람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인원이 들어가면 일정시간 입장을 제한하고 있었다.
- 많은 인파에도 무선 수신기 덕분에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해설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를 「광명동굴 라스코동굴벽화전」이나 우리시 문화유적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9 톨레도 견학

1) 톨레도 대성당

-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해 있는 톨레도 대성당은 1227년 건설을 시작하여 266년이 지난 1493년에 완성된 대표적인 고딕양식의 건축물로 스페인의 예술이 집약되어 있는 장소이다.
- 톨레도 대성당에서 감명 깊게 본 것은 화려한 제단 장식으로, 천정을 짊어 구멍을 통해 들어온 태양 빛이 인물상을 마치 후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자아낸 것이다. 엘 그레코와 고야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톨레도 도시재생 사례(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 톨레도의 구시가지의 경우 인구수가 급감하여 1950년대 3만 명에서 1980년대에는 8천 명 정도만 남아 있을 정도로 도시가 쇠퇴
-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구시가지에서 약 4km정도 거리에 직선형의 산업지구와 거주지 등 신시가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국가행정기관으로 톨레도컨소시엄을 설치
- 단순히 역사유산을 보존해서 전시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살아 움직이는 도시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거주지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실시
- 다양한 기념비적 유물과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2) 산토토메 성당

- 엘 그레코의 그림 단 1장으로 유명한 성당으로 이곳에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은 1586년에 완성한 걸작으로 상하 2단으로 나뉘어 위는 천상계, 아래는 지상계를 표현하고 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산토토메 성당으로 몰려든다.

10 마드리드 견학

□ 개 요

- 위 치 : 스페인 중부지역(스페인의 수도)
- 면 적 : 605.77km²
- 스페인의 수도로, 나라의 중앙부에 있어 각 도시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정치·경제의 중심지이자 스페인을 대표하는 현대적 문화 도시이다. 마드리드가 쏟아내는 경제적 효과로 인해 주변 도시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청사 및 스페인 왕궁이 있는 정치의 중심지이다.

1) 프라도 미술관

- 스페인을 대표하는 벨라스케스, 엘 그레코 등의 작품과 명작들을 보유한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다. 그림과 조각을 위한 전용 박물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소장장품 수만 약 3만점에 달한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워낙 양이 방대하여 제대로 감상하려면 1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프라도 미술관



미술관 인근 무인 주차 정산기

2) 마드리드 공영자전거(BiciMAD)

- 거 치 대 : 120곳 / 자전거수 : 1,500대
- BiciMAD는 2014년 5월부터 마드리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 전기 자전거 대여시스템이다.
- 자전거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고 이용 요금은 관광객(외국인)의 경우 처음 1시간에 2유로, 그 이후에는 시간당 4유로이며(보증금 150유로) 연간회원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다.
- 자전거 대여 및 반납 결제는 자전거 보관대 옆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결제 후 카드를 받은 후 이용하면 된다.
- 반납은 반드시 빌렸던 거치대에 반납할 필요 없이 주위에 가까운 거치대 빈자리에 반납하면 된다.
- 시사점
 - 우리시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4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
 - 향후 소하동 개발 등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기오염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오스크(무인 대여 기계)

5 연수성과 및 시사점

1. 국외연수를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선택한 이유?

- 이번 연수는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문화·건축·도시재생, 노인 요양시설 등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 교통정책·관광정책·도시재생 사례·문화유산 보존사례 등의 운영 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전문을 넓히고 전문성을 높여 우리시의 주요현안인 광명동굴 관광인프라 구축과 광명동 구도심의 개발방안 등에 대한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연수성과 및 시사점

- 보행권 확보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 연간 6,500만 명이 오는 관광객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기 위해 차량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자 트램(노면전차)과 공영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트램의 경우 노면에 붙어서 달리기 때문에 유모차, 휠체어 등의 승차가 쉬워 현지인에게도 큰 환영을 받고 있다.
 - 세비야 대성당, 알카사르 왕궁을 중심으로 구도심이 활성화된 이유는 교통통제에 있다.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량을 줄여 유구한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보호정책

- 스페인의 수많은 고(古) 건축물은 현재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들을 보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 건축물들은 중요한 관광 수입원이다.
- 세비야시의 경우 관광지역의 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물들의 경우 집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뒤따른다.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하지만 파손이나 주변 환경은 관광을 위하여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 2015 세계 관광경쟁력 1위 스페인의 관광정책

-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여행 및 관광 경쟁 지수’ 1위 국가는 스페인이다. 2위는 프랑스 3위는 독일로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유럽 국가이다. 스페인의 관광 진흥 및 보호 정책은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기원 전후의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재현해 놓는 보수기술도 놀랍지만 그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먼저 느껴졌다.
- 물론 우리나라와는 환경적 차이가 있고 조상들이 물려 준 문화유산이 스페인을 관광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몫을 차지했지만 지자체 간에 매년 새로운 정책마련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시 자체를 대표하는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지만 타 지자체가 가진 문화·자원들을 우리시 자원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광명동굴을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타 지자체가 가진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조화를 통한 도시재생

- 문화유산이 넘쳐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도시재생 사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문화유산이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과 개발할 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개발이 필요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변 환경에 맞게 리모델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루었다.
- 연수기간 중 방문한 리스본, 룬다 등 각 도시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나뉘어 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한옥은 구시가지고 그 이외의 현대적인 건물이 있는 곳은 신시가지정도라고 해야 할까?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다양한 방식의 건축물과 그들의 전통 및 생활상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룬다의 경우 누에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나뉘어 있었는데 너무 융화가 잘되어 있어서 마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느낌을 받았다.
- 광명동 지역의 기존 시가지와 소하동 지역의 신시가지의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마을 보존을 위한 노인 복지정책

- 그라나다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젊은이들은 교육과 직장 등의 이유로 도시로 떠나고 있다. 향후 인구가 줄어들어 마을을 없어지는 것을 막고 노인 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마다 있는 양로원을 거점으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국외연수를 마치며

- 광명은 현재 우리의 미래가 달린 KTX 광명역 역세권택지개발지구를 쇼핑·의료·미디어·디자인 중심지로의 발전과 광명동굴을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방문했던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포르투갈의 리스본 등 대다수의 도시는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조화로운 개발과 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구조였다.
-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광명의 후세에게 남길 미래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수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이를 현안 사업에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 연수일정 중 마드리드의 시청(도시계획 및 주택과)을 방문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마드리드 시청 측에서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여 방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점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현안 사항들에 대한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그라나다 및 마드리드의 노인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내실 있는 연수였다고 자부한다.

- 연수를 하는 동안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가톨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양식의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 알바이신 지구 등 건축물을 파괴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가꾸어 지금의 관광명소를 만들어 낸 점과 해양을 개척하여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이사벨 여왕 등 지도자들의 판단이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있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를 객관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우리시의 전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후세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광명을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과제인 것이다.

연 수 자	부 의 장	이병주
	의 원	김기춘
	의 원	김정호
	의 원	이영호